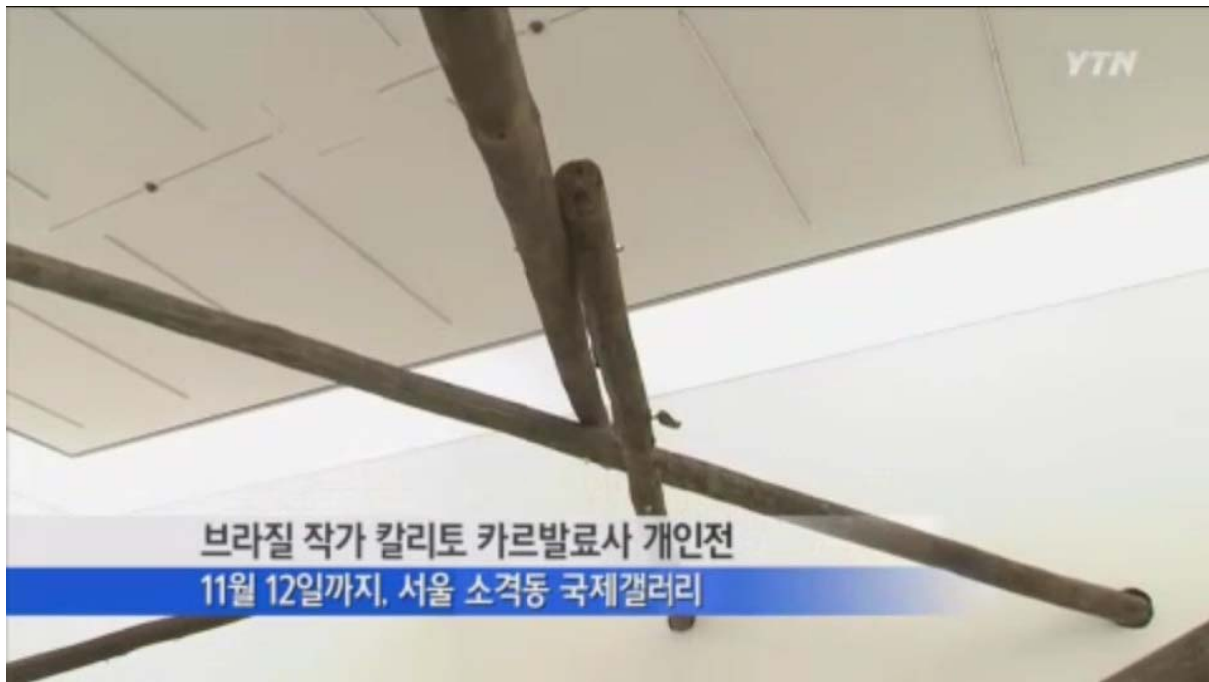


북유럽 건축디자인...나무가 답이다!

기사

2013-10-26 06:36



[앵커]

학교나 교회 건물을 나무로 지으면 어떨까요?

북유럽 건축디자인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카소가 중앙아프리카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서울 시립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북유럽에서는 학교 건물이 이렇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건 없습니다.

단순한 직사각형도 정사각형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내 시설도 모양과 색깔이 다채롭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 건축도, 실내 인테리어도 역시 자연과 조화, 친환경을 중심에 뒀습니다.

나무들마다 각자 고유의 특성들이 있죠.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와 결과 무늬를 살린 '나무 디자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교회 건물도 마냥 크게 또는 높게 짓지 않습니다.

내부는 나무로, 외부는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재료를 쓰는 추세입니다.

[인터뷰:안애경, 기획 큐레이터]

"(구리로 된 지붕이) 이 색깔에서 점점 변하잖아요. 나무와 잘 어울리는 그런 색, 즉 회색으로요. 그래서 건축가가 선택한 거죠."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 교육기관과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함께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북유럽의 건축과 디자인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갖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꽂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족의 조각상 '은키시 은콘디'입니다.

주술사가 마을의 안녕을 비느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조각상과 가면 등 중앙아프리카 유물 71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콩고강 유역의 열대우림과 대초원에서 형성된 중앙아프리카의 예술문화는 19세기 말부터 유럽에 유입돼 미술 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스테판 마텡,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장]

"피카소와 모딜리아니 등 작가들이 이 유물들을 보고 큐비즘, 입체파 운동을 창시하게 된 겁니다."

(those pieces are exactly the ones, artists like Picasso, Modigliani Modigliani, were confronted with when they started to bring Cubism to the world.)

거대한 기둥 아홉 개가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전신주들입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듯 각자 벽에 난 구멍 하나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브라질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 가져온 설치작품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보거나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공간을 바꾸고 재해석하고 싶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